

2024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혈 수기)

제목

‘헌혈 레이스’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유난히 노란 수선화 꽃향기가 질던 그날 나의 외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평소 손발이 자주 부으시고 삭신이 쭈신다는 말을 자주 하셨기에 자식들은 ‘그저 노인의 푸념이겠거니.’ 하며 보낸 시간 들이 결국 그날의 화근이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명은 신장암이었다. 그중 가장 생존율이 낮다는 4기, 즉 신장암 말기였다. 하루라도 빨리 병을 발견했다면 외할머니의 삶이 한 뼘 길어질 수 있었겠지만 이미 현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어른들은 외할머니가 늦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만든 어른들이 무척 원망스러웠고 미웠다. 외할머니는 내게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나의 부족함을 빈틈없이 채워주셨고,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셨을지도 모른다. 그랬기에 나도 외할머니를 의지하며 따랐고, 그러면서 내게는 자연스러운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게 외할머니의 부재는 열아홉 삶에서 처음 겪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나의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다. 나는 가만히 어른들처럼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며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의자에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찾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암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장암에 꼭 필요한 것이 ‘수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나는 곧장 친하게 지내던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진심으로 ‘헌혈증과 수혈’을 부탁했다. 하지만 통화가 거듭되어도 큰 성과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통 두 통 전화가 끊길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며칠 후 등교한 나는 이름만 알고 지내던 친구, 이름도 모르는 친구, 심지어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친구들에게까지 진심으로 부탁했다.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서 뒷받침되는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다음날, 친구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내 손에 들린 헌혈증 4장은 무척이나 소중했고 감사했다. 하지만 부족한 수량의 헌혈증으로는 외할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큰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요란한 진동과 함께 휴대폰이 울렸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과의 통화에는 나의 상황과 아픔을 인지한 따뜻한 공감과 배려 그리고 가능성과 희행(喜幸)이 있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증이 95장이나 모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순간 눈가에 눈물이 펄 펄

면서 목이 메어 왔다. 곤장 터져 버릴 것 같은 눈물을 참아가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전화를 끊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두 손 모아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받은 도움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 후 외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헌혈증과 수혈’을 통해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지만, 그해 겨울 뜨거운 눈이 내리던 12월, 청둥오리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외롭게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수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헌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생애 첫 ‘헌혈’의 기억은 친구들과 함께 기념품과 호기심 정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었던 주변 사람들의 헌혈증과 나의 외할머니처럼 ‘수혈’이 꼭 필요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내가 했던 결심, 그 순간부터 ‘헌혈’에 대한 가치와 본질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나의 ‘헌혈 레이스’는 시작되었다.

현재 나는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안되면 되게하라.’의 특전 혼을 바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대한민국 특전사에서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쩌면 이게 나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특전사에서 생활하며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노력과 희생은 결과에 비례했다. 그날 내가 했던 결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헌혈’을 행동으로 증명해 오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와 더불어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헌혈’을 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군에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명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동시에 나와 함께 ‘헌혈 레이스’에 동참하는 동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건전한 사고방식 함양과 판단력 향상에 있어 많은 도움과 배움을 줬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나는 늘 그랬듯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 다시 나를 찾아와도 또 이기며 극복하고 승리하며 증명할 것이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들이 베풀어 주었던 도움과 사랑, 그리고 나의 결심으로 시작된 ‘헌혈 레이스’는 어느덧 횟수로 18년이 훌쩍 넘었다. 그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여 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큰 영광도 얻었다. 진정한 감사는 더 큰 봉사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며, 현재는 ‘조혈모세포 기증자(골수이식)’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적 후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다. 나의 사소한 행동과 내가 실천하고 있는

‘헌혈’로 행복을 나누는 횃수만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낀다.

‘헌혈’은 내게 ‘헌혈 레이스를 통한 감사의 가치’를 매년 깨닫게 해줬으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 내게 ‘헌혈’이란 ‘작은 행동 하나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숭고한 가치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 나는 늘 그랬듯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이 깃들도록 오늘도 매일 단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그날의 결심과 초심을 잊지 않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헌혈’을 통해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봉사하며 희생하고 행복을 나눌 것이다.

감사하고 고마웠던 헌혈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 내 손에 들렸던 헌혈증,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헌혈 레이스’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였다. 처음 내가 느낀 고마움과 열정을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절 때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이들이 ‘헌혈’을 통해 나와 같이 ‘헌혈 레이스’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를 익혀 성취감을 얻기를 소망한다.